

우먼즈

Vol. 2236
MAY 22 / 2026



I'm on your side!

잡이나 비즈니스 사고 파실때
연세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고객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al Estate Broker MiMi Kwon
mimbestchoice@gmail.com

권미경 253.335.5301

2505 S. 320th St., #255, Federal way, WA 98003 2702 S. 42nd St Suite 205, Tacoma, WA 98409
3400 158th St SW, Suite 540, Lynnwood, WA 98037 15400 Southcenter Parkway, Suite 502, Seattle, WA 98108

유명 스킨케어
Famous Skin Care

- * 각종 최신장비 (Hifu, 울세라, 소노, 물방울 리프팅 등)
- * 자연스러운 반영구 눈썹 아이라이너 (남·여)
- * 검버섯 쥐뿔, 사마귀 등 피부트러블 해결
- * 체험으로 느끼는 환상 맛사지

30816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미국의사 MD.Alan
253.306.4268 보톡스, 필러, 콜라겐
백옥주사, 윤곽주사

THE ONE LOGIS (www.theoneo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HRNA EXPRESS
하나택배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택배·이사·수,출입운송·창고보관·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친절과 정성으로
당신의 치아를 책임집니다.

이영우 치과

YOUNGS FAMILY DENTISTRY

253-839-0660

30821-14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Visa, Master Card 취급
무보험 및 65세이상 할인혜택
모든 Major 보험 취급

새환자 스페셜
전체 검사 및 x-rays \$70

www.FederalwayMyDentist.com

Federal Way H.S. 308th St. N
이영우 치과 14th Ave S. Exit 143 (I-5)
H-Mart III 312th St. S
320th St. S

전표시간
월 8:30-5:00 화 8:30-5:30
수 8:30-6:00 목 8:30-5:30
금 예약
Lunch 1:00-2:00



WASHINGTON
Education Institute



워싱턴 학원



**[애프터 스쿨 (Kindergarten ~ K8)
진학반 (K9 ~ K12)]**

- ✓ 15,000 sf : 20개 교실
- ✓ 학교픽업 서비스 (스쿨버스운행)
- ✓ 주 5일수업
- ✓ 방학 프로그램
- ✓ 특별활동
- ✓ 간식제공
- ✓ 선착순 예약 (정원이 차면 대기)
- ✓ 외국어교실



**English
Math**



**K-POP
Dance**



**School Bus
Pickup**



Music



Art



**Book Club
Writing Club
Coding**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425)520-0221
washingtoneducationinstitute.com

2025년 세금보고 시즌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2025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세의 부담,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고물가 속에서도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속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로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잠 못 이루던 밤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책임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하루는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내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세금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노력과 희생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절세를 통해 노후에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J 세무 회계법인 로펌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203.3137(8) / 253.400.7586

“위대한 이혼” 조영남 무례한 ‘전처팔이’ 지긋지긋.. 더 이상 웃어줄 시청자는 없다

한 번이면 실언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굳어진 태도로 읽힌다.

조영남이 최근 방송에서 또다시 전처 윤여정을 언급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철저히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포장하며, 상대의 치열했던 삶마저 자신의 서사 안으로 함부로 끌어들이었다. 예능의 탈을 쓰고 가볍게 소비됐지만, 화면 밖으로 전해진 것은 실소와 짙은 불쾌감뿐이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16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조영남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13년 살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전 아내가 이해력이 넓어서 내가 말한 걸 다 이해해 주고 적절히 해결해 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딸의 사위감에 대한 질문에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난 이혼한 느낌이 안 든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덧붙였



‘속풀이쇼 동치미’와 ‘아침마당’에 출연한 조영남.

MBN·KBS1

다. 과거의 상처를 가벼운 농담거리로 전락시킨 셈이다.

대중이 느끼는 피로감은 며칠 전 벌어진 유사한 촌극 때문에 더욱 가중됐다. 조영남은 12일 KBS 1 ‘아침마당’에 출연해 “난 13년 살았다. 그 친구들이 날 이긴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며 타인의 장기 결혼 생활을 자신의 이혼과 저울질했다. 또한 “그 대신 난 위대한 이혼을 했다. 이혼해서 그 여자가 잘됐고, 난 화가로 성공했다.

윤여정은 음식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한다”는 무례한 평가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대목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조영남이 윤여정의 삶을 자신의 가십성 에피소드로 치환하려 한다는 점이다. 과거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을 두고 “바람피우는 남자에게 대한 최고의 한 방”이라고 말했던 궤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대의 빛나는 성과를 마치 자신의 과오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양 포장하는 화법이다. 말끝마다 따라붙는, 반성을 가장한 자기 미화와 책임 회피가 교묘하게 뒤섞인 언사는 시청자를 기만한다.

정작 윤여정이 대중에게 털어놓은 현실은 이토록 가볍지 않았다. 그는 이혼 후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배역의 크기를 따질 여유조차 없이 생계형 배우로 뛰어야만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조영남의 입을 거치면 이 안타까운 시간은 알뜰하게 증

발한다. 한 번도 싸운 적 없다는 말은 관계의 균열을 은폐하고, “그 여자가 잘됐고 나도 성공했다”는 포장은 상대가 홀로 견뎌낸 피눈물 나는 헌신을 지워버린다. 이혼이라는 상대의 아픔마저 자신의 화제성을 위해 재가공하는 태도는 쿨함이 아니라 명백한 무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을 이른바 예능적 멘트로 포장해 유통하는 방송의 안일함이다.

누군가의 아픈 과거가 토크쇼의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던져지고, 시청자는 그 불편한 광경을 강제로 목격해야 한다. 웃자고 던졌다는 말은 변명이다. 조영남은 또 마이크를 쥐고 전처를 입에 올렸다. 그리고 윤여정은 또다시 원치 않는 화제에 강제 소환됐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이런 낡고 무례한 ‘전처팔이’를 재미로 소비해 줄 생각이 없다.

김현덕 기자

미시컬보석

각종 고급 보석



페드럴웨이 커몬스몰 안 (Inside) (구 씨택몰)

주얼리 SALE 40% OFF

금 최고가에 삽니다!

10K, 14k, 18k, 순금, 백금

최고가 보장

다이아 구입시 즉석 세팅 **무료**

반지 구입시 즉석 사이조수리 **무료**

- GIA/EGL 기타 다이아몬드 취급
- 결혼예물, 보석 수리 및 세공
- 즉석 DIA 세팅
- 1 Hour 주얼리 리페어
- 각종 브랜드 시계 배터리 교환 및 밴드 사이징

253-632-3399

253-839-1613

7day OPEN

월-토 11AM-7PM

일 12PM-5PM

영업 시간

페드럴웨이 커몬스몰 내(Inside) (1906 S. Commons, Federal Way, WA 98003)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사파이어 / 루비 / 남양진주 / 오팔 / 컬러 스톤 / 24K돌반지 / 애기팔찌 / 이태리 체인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이나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귀화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는 이번 주 연방법원에 총 12명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규모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해당 인물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

했으며, 일부는 시민권 취득 후 테러단체 지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렌처 법무장관 대행은 "사기, 성범죄, 테러 지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애초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는 안 됐다"며 "이민 시스템의 중대한 위반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검토 사례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법무부 역시 전국적으로 약 400건 규모의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귀화 시민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로스쿨의 캐산드라 버크 로버트슨 교수는 "짧은 기간 안에 이처럼 대규모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약 130건 수준이었다.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원 판단이 필요하고 입증 기준도 매우 높아 정부가 쉽게 승소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감비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 연루 의혹을 받은 인물,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

죄를 인정한 성직자, 알카에다 지원 혐의 인정자, 위장결혼 및 총기 밀매 연루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제는 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단순한 예외적 법적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우먼즈
당신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우먼즈
발행인 박재영
편집국 206.779.5382 광고국 206.779.5382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Womans No.1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워싱턴주 오직 외길 25년 - 뿌리가 깊은 장인정신

장수돌침대

JangSoo Stone bed



타코마 부한프라자 내
253-582-2984

다양한 침대, 쇼파 전시

GLOBAL REAL ESTATE EXPRESS • Hotel • Motel • Commercial Properties

부동산의 좋은 이웃
Good Neighbors in Real Estate

Commercial 건물, Lot
Asking \$900,000

Gas & Grocery with Property
Asking \$1.5M + Inventory
Commercial Lot 건물 신, 증축 가능
Lakewood, 한인타운

Commercial 상가 8 Unit
Asking \$2.7M, 6 Cap.
Tacoma

이상규 Sang Kyu Yi Hotel, Motel 상담 환영 /Broker

206-612-8962 | 253-988-4949 | real4949@gmail.com
www.globalreexpress.net 8544 S. Tacoma Way Suite B, Lakewood, WA 98499





물 오른 '단종 오빠' 박지훈
백상예술대상 '왕사남'으로
신인 연기상-인기상 2관왕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입소문 타고 시청률 상승세
매 작품 자신만의 색깔로
존재감 뽐내며 성장 중

천만 관객 찍고 놀림 흥행 요리 하고

사진 | YY엔터테인먼트·티빙·쇼박스·오리온·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배우 박지훈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배우 타이틀과 백상예술대상 2관왕을 거머쥔 데 이어 차기작 '취사병 전설이 되다'까지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그야말로 '될놈 될(될 사람은 된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훈은 올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배우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조선의 왕 단종을 재해석한 이 작품에서 그는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왕의 고독과 불안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절제된 감정 연기와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힘이 인상적이었다. 소년미와 왕의 비애를 동시에 품어낸 박지훈의 연기는 그야말로

로 인생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결국 '왕과 사는 남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박지훈 역시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과 인기상까지 품에 안으며 단숨에 총무로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보통 강렬한 사극 캐릭터를 남긴 배우들은 한동안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지훈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차기작인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통해 생활밀착형 코미디 장르로 방향을 틀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 취사병으로 배치된 강성재(박지훈 분)가 예상치 못한 요리 재능

으로 부대의 전설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성장 드라마다. 박지훈은 극 중 어딘가 어설피지만 특유의 눈치와 생활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취사병 강성재 역을 맡았다.

초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첫 방송 이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 2회 만에 전국 가구 기준 평균 6.2%, 최고 7.6%,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6.7%, 최고 7.9%로 상승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 기준) 실제로 작품 속 박지훈은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다.

잔뜩 긴장한 채 감자 껍질을 까다가 사고를 치고, 선임 눈치를 보며 허둥대는 모습은 현실 군 생활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특유의

생활 코미디 감각을 만들어낸다.

특히 그동안 박지훈이 쌓아온 소년미가 이번 작품에서는 코미디 장치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억울한 표정이나 잔뜩 겁먹은 눈빛조차 웃음 포인트가 되며 캐릭터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업계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한 작품의 성공이 아닌, 서로 다른 장르에서 연속으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배우 박지훈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총무로와 방송가에서는 이미 차세대 청춘 배우 라인업 가운데 박지훈을 가장 안정적인 카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박지훈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다. 매 작품 비슷한 얼굴을 반

복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조금씩 깨뜨리며 새로운 결을 만들어간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처연한 왕의 얼굴을 보여줬다면,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는 생활감 넘치는 청춘의 얼굴로 돌아왔다.

천만 영화에 이어 드라마 흥행까지 박지훈은 지금 가장 좋은 흐름 위에 올라탔다.

그 흐름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장르와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해내는 힘에서 비롯됐다.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에서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강성재까지, 박지훈은 또한 번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있다.

서지현 기자
sjay0928@sportsseoul.com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 SEATTLE KOREAN CULTURE CENTER —

배우고, 즐기고, 연결되는 공간 ♡



새로운 배움



소중한 만남



즐거운 일상

PROGRAMS



통기타 클래스

기초부터 연주까지, 함께 즐기는 기타 수업



생활영어

일상 회화부터 실용 영어까지



라인댄스 / 줌바댄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하게!



컴퓨터 기초

컴퓨터 기본부터 활용까지 쉽게 배워요



재봉 클래스

기초 재봉부터 작품 만들기까지



스패니시 클래스

기초 스페인어 회화

SPECIAL

싱글 모임 ♡

매주 3째주 토요일 5시



📍 **해송식당** 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모집 안내

- ✔ 수강생 모집 중
- ✔ 강사 초빙 (재능 나눔 환영)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즐겨요!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극단 감수성 반전 매력... '젊은 이병헌' 보는 듯



SBS '멋진 신세계' 허남준

사진 | 에이치솔리드 SNS H.SOLID

차갑지만 뜨겁고, 냉정하지만 애절하다. 이 역설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배우가 허남준이다.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의 흥행에는 단연 주연 배우 임지연과 허남준의 정교한 연기 호흡이 자리한다. 2014년 영화 '인간중독' 이후 매 작품 눈부신 성장을 입증해온 임지연은 '멋진 신세계'에서는 코믹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톱배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허남준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의 발견이다. 2019년 영화 '첫잔처럼'으로 데뷔한 이래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2' '유어 아너' '백번의 추억' 등을 거치며 차세대 유망주로 존재감을 보였다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명실상부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한 인상이다. 극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탁월한 장악력을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허남준의 연기가 곧 설득력이다. 냉혹한 재벌 캐릭터인 차세계를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목소리와 발성에 있다.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는 차세계의 오만함과 냉소적인 심리를 날카롭게 포착하며 대



이승록의 직감

사마다 무게감을 더한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귀에 꽂히는 디션은 차세계의 냉철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대변한다.

특히 차세계라는 인물이 매력적

**악질 재벌 차세계 역... 임지연과 찰떡
중저음 디션-섬세한 표정 연기 압권
차갑지만 뜨겁고, 냉정하지만 애절**

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허남준의 섬세한 표정 연기 덕분이다. 외면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신서리(임지연)에게 서서히 마음이 이끌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얼굴의 변화는 차세계의 심리적 동요를 정밀하게 짚어낸다. 눈썹을 슬쩍 올리거나, 이를 꼭 깨물 때 선명해지는 턱 근육의 긴장감, 눈빛에서 독기를 살며시 거두는 찰나의 변화 모두 허남준이 치밀하게 설계한 감정의 디테일이다. 이렇듯 촘촘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쌓아 올린 감정선은 시청자들에게도 둘의 로맨스에 빠져들 수

있는 여유와 공감을 준다.

최근 업계에서 좀처럼 찾아보지 힘든 스타일의 남자 배우다. 선 굵은 이목구비가 주는 강렬한 아우라가 슬며시 미소를 짓는 순간 소년의 순수함처럼 녹아내리는 반전이 있다. 지난해 공개된 아이유의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뮤직비디오에서도 증명된 강점이다. 한국 멜로 영화의 고전 '8월의 크리스마스'를 오마주한 뮤직비디오에서 허남준은 대사 없이 오직 시선과 표정만으로 한 편의 서사를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우수에 찬 허남준의 눈빛이 서글픈 감정을 전달하며 곡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허남준의 모습은 마치 배우 이병헌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킨다. 과거 이병헌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그해 여름' 같은 멜로에서 한없이 애뜻하고 처연한 눈빛을 보여주다가도, '달콤한 인생' '내부자들' 같은 누아르에서는 거친 야생성과 피비린내를 뿜어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극단의 감수성을 한 그릇에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배우는 지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허남준이라는 배우가 앞으로 자신의 넓은 그릇을 어떤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로 채워나갈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25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신뢰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 수많은 고객의 회복.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3 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및 합의 ”

교통사고 전문



CAR CRASH
WASHINGTON

www.carcrashwa.com

한국어.영어 (253) 313 2738 (253) 313 6813

"ATM 수수료 두 번 냈다면" ...BOA 고객 보상 가능

일부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들이 현금인출기(ATM) 수수료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운영 ATM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잔액조회(balance inquiry) 수수료가 중복 부과됐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고객이 한 번만 잔액조회를 했는데도 은행이 두 차례 수

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225만달러 규모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대상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세븐일레븐 내 ATM에서 동일 방문 중 두 번 이상 잔액조회 수수료를 부과받은 미국 내 뱅크오브아

메리카 체킹 계좌 보유 고객들이다. 다만, 이미 2024년 별도 합의 사건(Weiss v. FCTI)을 통해 보상을 받은 고객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고객들에게는 이메일이나 우편엽서 형태로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7월 29일까지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조이시애틀뉴스>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 또는 —————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비즈니스 탐방-샤부 존(Shabu Zone)

“맛도 가격도 퀄리티도 서비스도 모두 만족”

1개월 전 페더럴웨이에서 오픈한 '샤부 존', 불경기 식도락가들에게 큰 만족 선사
 퀄리티 높은 무제한 고기와 해산물에 과일 · 슬러시 · 아이스크림까지 단돈 29.99불

불경기가 깊어지며 외식 한 번에도 지갑 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오히려 식도락가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샤부샤부 전문점이 페더럴웨이에서 등장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샤부 존(Shabu Zone)'이다.

개업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하지만 샤부 존은 벌써 “맛, 가격, 퀄리티, 서비스 사박자를 모두 갖춘 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 번 다녀온 이들의 입을 통해 “한인 입맛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집”이라는 평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탁 트인 넓은 홀이다. 답답함 없이 시원한 공간 구성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샤부샤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프’다.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깊은 감칠맛을 낸 기본 다시 수프(Basic Dashi Soup)를 비롯해 총 9가지 수프가 준비돼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 수프(Mala Soup),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소 수프(Vegetable Soup)도 눈길을 끈다.

기자는 이 중 매콤한 풍미가 살아 있는 스파이시 오리지널 하우스 수프(Spicy Original House Soup)를 선택했는데, 첫 숟갈부터 만족감이 확인됐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수프가 1인용 팟으로 제공된다는 것. 함께 온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양보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수프를 여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 기자 역시 과거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반으로 나뉜 대형 팟을 공유하다가 수프가 맞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원천 차단된다.

수프를 골랐다면 다음은 고기 선택이다. 와규 갈비살을 비롯한 다양한 소고기류, 내추럴 삼겹살 등 돼지고기류, 호주산 양고기, 최상급 닭가슴살까지 총 11가지 고기 메뉴가 준비돼 있다. 선택지가 넉넉한 만큼, 처음 방문했다면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1~2접시씩 여러 종류를 나눠 맛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샤부 존 외부 전경.



혹시 “고기 위주의 메뉴라 채식주의자는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기우다. 뷔페 코너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우와 게 등 해산물부터 각종 버섯과 신선한 채소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여기에 점심에는 3달러, 저녁에는 10달러를 할인해주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가격 정책은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소스 또한 샤부 존만의 자체 개발 소스부터 익숙한 기본 소스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잘 익은 고기와 해산물을 소스에 살짝 찍어 먹는 순간,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만족감이 배가된다. 식사 마무리는 디저트 코너다. 신선한 과일과 슬러시, 아이스크림이 준비돼 있으며, 아이스크림 위에 취향대로 토핑을 얹어 먹으면 입 안에 남을 수 있는 느끼함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계산대 앞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점심 가격은 29.99달러(월~금 오전 11시~오후 3시, 공휴일 제외). 요즘 웬만한 한식 단품 메뉴도 20달러를 훌쩍

넘기는 현실에서, 푸짐한 고기와 해산물, 디저트까지 무제한으로 즐기기도 이 가격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반칙’에 가깝다. 저녁 가격은 41.99달러다.

“점심과 저녁 메뉴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 구성은 상당히 유사하다. 점심에도 메인 라인업 대부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다만 저녁은 ‘차이가 크다’기보다 ‘한 단계 더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시간대에 맞춰 일부 고기와 해산물 등 프리미엄 메뉴가 더 풍성하게 준비돼(고기 선택의 폭이 점심 #5~#11에서 #1~#11으로 확대 및 뷔페 코너에 해산물 추가), 모임이나 접대 자리로 활용하기에 좋다. 실제로 기자 일행이 저녁에 방문했을 때, 기본 메뉴의 폭이 넓어 만족도가 높았고, 여기에 저녁에만 느낄 수 있는 추가 구성과 분위기가 ‘값’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샤부 존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 위에 정성과 디테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반가운 ‘제대로 된 샤부샤부 집’이다. 식도락가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혼자 가기보다는, 평소 대접하고 싶은 지인이나 사업상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는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 줘서 고맙다”라는 마음과 “정말 잘 대접받았다”라는 만족감을 함께 느끼며, 그 감사함을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문의: 206)212-6125

▲주소: 1816 S 320th St Federal Way, WA 98003

▲영업 시간: 월~목요일(점심: 오전 11시~오후 3시, 저녁: 오후 5시~오후 10시), 금요일(점심: 오전 11시~오후 3시, 저녁: 오후 5시~오후 11시), 토요일(오전 11시~오후 11시), 일요일(오전 11시~오후 10시)

▲가격: 월~금요일(점심: \$29.99, 저녁: \$41.99), 토~일요일-공휴일(점심-저녁: \$41.99)



퀄리티 높은 고기.



뷔페 코너에 마련된 싱싱한 새우.



뷔페 코너에 마련된 싱싱한 게.



다소 느낄 수 있는 느끼함을 시원하게 날려 버릴 각종 슬러시.

캐나다 로키 전문 여행사로

고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울행 항공권
국내선 항공권 판매

✈ "한국에서 한달간 무제한 사용 [유심] 저렴하게 드립니다"

"공항 라이드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 캐나다 로키 전문

매주 2회 출발 (5월~10월 크외는 수시 출발)

2026 캐나다 로키여행

4박5일 \$990

타사보다 더 즐기는 코스
자스퍼/멀린호수 크루즈 영혼의섬관광
미에뜨 야외온천/신비의 모레인 호수

VIA RAIL 밴쿠버-자스퍼 1박 2일 기차여행
일반석 \$180 For Young People
벌스 (번케베드) \$600 추가
캐빈 1인실 / 2인실 \$800 추가

5박6일

\$1090

밴쿠버 관광 + 4박5일 관광

알래스카 크루즈



5월~9월

지중해 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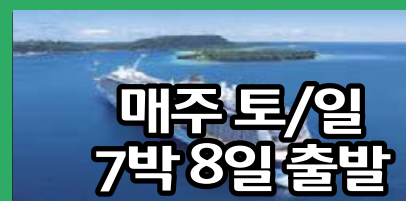
4월~11월

북유럽 크루즈



5월~9월

캐리비안 크루즈



매주 토/일
7박 8일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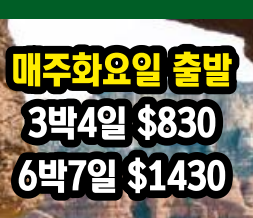
남미 여행 10박12일 \$5900부터 (항공포함) 수시출발

페루(리마,쿠스코,마추피추)알젠티,브라질(이과수,리오 예수님동상)

고국투어 (K-SHUTTLE) 7박8일 인천 공항부터 픽업(2인이상) 한국인 가이드가 영어 및 한국어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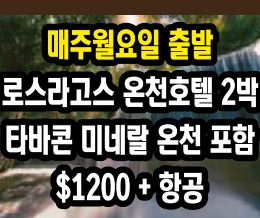
매주 목요일 출발 \$1499+항공 (호텔 조식 포함/ 중식과 석식은 맛투어집에서 자유식)

미서부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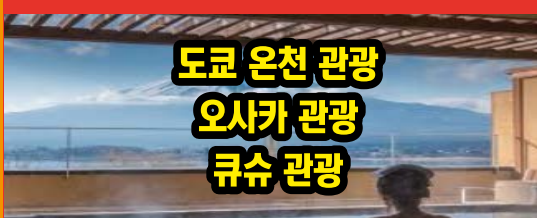
매주 화요일 출발
3박4일 \$830
6박7일 \$1430

코스타리카 관광



매주 월요일 출발
로스라고스 온천호텔 2박
타바콘 미네랄 온천 포함
\$1200+항공

일본 관광(3박4일)



도쿄 온천 관광
오사카 관광
큐슈 관광

엘로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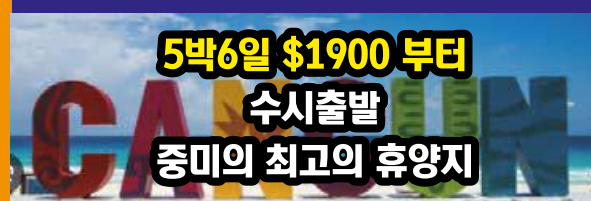
매주 월,금 출발
3박4일 \$890

베트남관광



다낭/하롱베이/하노이

칸쿤



5박6일 \$1900 부터
수시출발
중미의 최고의 휴양지

우리투어

린우드 G-Market 1층

206-200-6336 | 206-200-6336

wooritour.ca

<주말/휴일 상담가능>

wooritoursea@gmail.com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Korea Great Again”

“Two Korea NO! One Korea YES!”

일시: 2026년 6월 5일 오후 2시

장소: KOAM-TV

32008 32nd Ave S, Federal Way, WA 98001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SVP 김기호 사무총장 253-651-3778)

진행자



김수영 대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시애틀지회장

출연자



장만순 위원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케네스 배 선교사

뉴코리아파운데이션 대표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서인택 상임의장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상임의장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엠마부동산에게 식당 매매를 맡겨주세요



최상의 조건으로
소문나지않게 팔아드리겠습니다.

좋은 조건의 비즈니스 리스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매 추천 매물



✓ 햄버거 15만불

- ▶ 오너캐리 가능
- ▶ 저렴한 렌트비 손쉬운 운영
- ▶ 메뉴 조정시 매상 500불 추가가능

- ▶ 일매상 계속 올라가는가게
- 1월 1600불
- 2월 1700불
- 3월 1900불



✓ 페더럴웨이 3.5만불

- ▶ 평균 일매상 1000불 주말 일매상 2000불
- ▶ 오너캐리 가능
- ▶ 아주 알짜 매물



✓ 일식당 한식당 일매상 3천불이상 매물 있습니다.

개별상담 요청하시면
맞춤 안내해드립니다.

엠 마 부동산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A: 병원 / 입원 보장, **파트 B:** 의료 보장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이라고도 하며 파트 A와 B를 대신 관리합니다.
다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 파트 C 및 D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MAPD)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영 회사에서 메디케어 A,B 관리를 대행 합니다. 월보험료는 \$0 이거나 그 이상 일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 부담금 이후에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는 합당한 의료비라면 100% 커버 됩니다. 다양한 수준의 보장을 포함한 플랜을 제공 할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의료보장, 의약품 코페이가 다를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를 1차보험으로 사용 할때보다 의사네트워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어드벤처지 플랜 등록 대신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2차보험으로 선택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등록 기간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속한 3개월 전, 후)	Medicare 에 처음 가입하는경우 65세를기준으로 3개월 전, 후 7개월 동안 가입, 약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매월 평균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중 가입기간(10/15-12/7)	새로운 약보험,또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오픈 가입 기간(1/1-3/31)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 있다면 다른 메디케어어드벤처지 플랜에 가입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할 수 있고 약보험에 등록 이 가능합니다
특별 등록 기간	적격 생활 변화이후 2개월 동안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퇴후 직장보험 상실, 이사 등, 현재플랜이 정부CMS 와 계약이 끝난경우

보험 등록시 유의할 점

주치의, 전문의, 병원, 약국에서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재 복용중인 약을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년중 총 지불 해야 하는 약 비용에 대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신청

위 혜택을 받으시면 메디케어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듀얼 플랜에 등록자격이 되시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일 경우 수입 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선용 보험 에서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아쉬운 서사 덮는 '팝의 황제' 무대

2009년,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팝의 황제'라는 이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26년, 그 신화가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서 부활했다.

영화 '마이클'이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며 폭발적인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음악 전기 영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공연처럼 관객들을 끌어당긴다는 평이다.

'마이클'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소년 마이클이 어떻게 전 세계를 열광시킨 팝의 황제가 됐는지 그 음악 전기 영화다. 어린 시절 잭슨 파이브 활동부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팝스타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간다. 이번 작품은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 자파 잭슨이 주연을 맡으며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북미에서 우선 개봉한 '마이클'은 현지 개봉 첫 주말 9700만 달러(한화 약 1433억원)를 벌어들이며 음악 전기 영화 장르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후 북미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65개국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단숨에 글로벌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개봉 10일 만에 월드와이드 흥행 수익 4억2392만 달러(약 6235억원)를 돌파했고, 현재도 가파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봉과 함께 음악 시장까지 뒤흔들며 사실상 마이클 잭슨의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줬다. 영화 개봉 이후 대표곡들이 글로벌 차트에서 역주행을 시

13일 개봉 '마이클'

작했고,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3년 발표된 대표곡 '빌리 진(Billie Jean)'은 5일 기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38위로 재진입했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에서도 정규 6집 '스릴러(Thriller)'가 7위, 베스트 앨범 '넘버 원스(Number Ones)'가 1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영화 OST인 '마이클: 송스 프롬 더 모션 픽처(Michael: Songs From The Motion Picture)'는 37위에 올랐다.

또한 베스트 앨범 '디 에센셜 마이클 잭슨(The Essential Michael Jackson)'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스릴러'와 '배드(BAD)'까지 나란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달라져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전히 하나의 문화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마이클 잭슨은 이미 전설로 회자되지만, 영화 '마이클'은 시간적 거리감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위크와 군무, 폭발적인 카리스마가 대형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 영화관은 하나의 콘서트장이 된다. 과거 마이클 잭슨을 열광적으로 소비했던 세대에게는 거대한 향수를, 처음 그의 음악을 접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충격을 안긴다.

물론 영화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생전 마이클 잭슨을 따라다녔던 각종 사생활 논란과 성추문 의혹 등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그의 음악적 업적과 영광의 순간들만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이토록 강력한 화제성을 얻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의 음악 자체에 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고, 세대를 넘어 반복해서 소비되는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 소환한다. 13일 국내 개봉을 앞둔 '마이클'이 또 다른 음악 영화 열풍을 불러올지 기대감이 더해진다.

서지현 기자
사진 | 유니버설 스튜디오

친조카 자파 잭슨 주연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
북미·영 등 박스오피스 정상
대표곡들은 차트 역주행
이름 자체가 하나의 '문화'
미화 논란에도 높은 화제성



근로자로서의 당신의 권리를 아십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 ▶ 직장에서 다쳤을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
- ▶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때
- ▶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에 대하여
최저임금, 초과임금, 휴식시간, 유급병가

시애틀 한국 문화센터가 도와드립니다.

360-915-4148



In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for worker outreach and education.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동지선교회 남쪽밥상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영화 '호프' 출연진.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 '군체' 제작보고회.



영화 '도라' 스틸컷.

칸의 밤 빛낼 K-무비 칸나박

세계 영화인의 축제인 제79회 칸국제 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칸은 한국 영화계에도 유독 의미 있는 해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 영화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나홍진 감독의 '호프', 연상호 감독의 '군체', 정주리 감독의 '도라'까지 다양한 한국 작품들이 칸을 찾는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는 현지시각으로 12일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발에서 개막했다. 올해 개막작은 피에르 살바도리 감독의 '디 일렉트릭 키스'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올해 칸의 중심에는 단연 박찬욱 감독이 있다. 앞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가 각각 황금카메라상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맡은 적은 있지만 한국 영화인이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찬욱 감독은 개막식 레드카펫

에 참석해 전 세계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유의 품격 있는 블랙 슈트 차림으로 등장한 박찬욱 감독은 현장 취재진과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오랜 시간 칸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만큼 올해는 '심사위원장 박찬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칸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올해 경쟁 부문에는 총 22편의 작품이 초청된 가운데 한국 영화로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이후 약 4년 만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한 사례다.

'호프'는 개봉 전부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 국내외 배우들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나홍진 감독 특유의 강렬

한 세계관과 장르적 색채가 다시 한번 칸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 부문에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신작도 대거 포진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올 오브 어 서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비터 크리스마스' 등 쟁쟁한 작품들과 함께 '호프'가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 영화의 존재감은 경쟁 부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는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됐다. 이에 연상호 감독을 비롯해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등이 현지 시간 15일 튀미에르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월드 프리미어 상영회에 참석한다.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 역시 칸을 찾는다.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도

연과 일본 배우 안도 사쿠라가 주연을 맡은 '도라'는 비경쟁 부문인 감독주간에 공식 초청됐다. '도라'는 오는 17일 크루아제트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신인 감독의 활약도 이어졌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생 최원정 감독의 3D 애니메이션 '새의 랩소디'는 학생 단편 경쟁 부문인 라 시네프에 진출했다. 라 시네프는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부문으로 미래 영화인을 발굴하는 장으로 꼽힌다.

이처럼 올해 칸국제영화제는 박찬욱 감독의 심사위원장 선정부터 '호프' '군체' '도라' '새의 랩소디'까지 한국 영화의 다양한 얼굴들이 함께 자리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남기고 있다. 거장 감독부터 신예 감독까지 세대를 아우른 한국 영화인들이 세계 영화의 중심 칸에서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지현 기자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박찬욱 감독.

레퍼블릭

박찬욱 한국 영화인 첫 심사위원장 위촉
나홍진 신작 '호프' 황금종려상 놓고 경쟁
연상호 '군체'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초청
정주리 '도라' 최원정 '새의 랩소디' 선배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챙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라이선스 · 각종 행정·법률(리뷰) 서류까지 ·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흥행은 모지리 히어로 '코믹 차력쇼'에 맡겨라

완벽한 히어로는 없다. 오히려 어딘가 부족하고, 찌질하고, 현실적이기에 더 인간적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원더풀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 세상을 구할 운명을 타고난 영웅 대신 동네 '개차반' '개진상' '왕호구' 모지리들이 우연히 초능력을 얻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기존 히어로물의 공식을 유쾌하게 비튼다.

'원더풀스'는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한다. 종말론과 불안이 뒤섞여 있던 시대,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다. 연출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유인식 감독이 맡았고, 배우 박은빈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원더풀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제목 그대로 '폴스(Fools)'에 있다. 기존 히어로물 속 주인공들이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선한 인물들이었다면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다. 능력을 얻고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세상을 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다.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 다칠까봐 별별 떨고, 또 누군가는 초능력을 이용해 생색부터 내고 싶어 한다. 위기 앞에서도 먼저 자신의 안위를 고민한다. 바로 그 현실적인 모습이 묘한 공감을 만든다. 히어로라고 해서 항상 용감할 수는 없다는 걸 '원더풀스'는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결국 이야기는 익숙한 권선징악의 흐름을 놓지 않는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끝내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거창한 사명감



서지현의
몰입

1999년 종말론 득세 세기말 배경 속 개차반-개진상-왕호구 '영웅 성장기' 기존 정의-사명감 뭉친 주인공 아닌 초능력 자랑하고픈 인간적인 캐릭터 박은빈-최대훈-임성재 팀 플레이에 차은우 더해져 코믹 어드벤처 탄생



때문도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성장기는 더욱 인간적이다.

특히 작품은 세기말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199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 불안과 혼란, 종말론적 공기가 빌런 '분더킨더'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덕분에 단순한 코미디 히어로물이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균상을 담아낸 판타지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캐릭터플레이 역시 강점이다. 중심에는 박은빈이 있다. 극 중 인성 개차반 은채니 역을 맡아 기존의 단정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순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능청스러운 말투로 극을 휘젓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입체적인 인물을 완성했다. 최대훈과 임성재의 존재감도 뚜렷하다.

개진상 손경훈 역의 최대훈과 왕호구 강로빈 역의 임성재는 작품의 웃음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다. 특히 두 사람이 보여주는 티키타카는 '원더풀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최대훈은 특유의 생활형 연기로 까다로운 캐릭터를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낸다. 어딘가 '뽕작 속았수다' 속 학사 아저씨를 떠올리게 하지만 밋밋한 인간적인 면모를 더하며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차은우 역시 앙상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한다. 그동안 일부 작품에서 '연기력 논란'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지만 이번 '원더풀스'에서는 전체적인 팀플레이 안에서 한층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다른 배우들의 안정적인 호흡과 유인식 감독의 연출이 시너지로 낸 결과다.

여기에 작품 곳곳에 숨겨진 히어로물 오마주도 쏠쏠한 재미를 더한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패러디 장면부터 이운정(차은우 분)이 착용하는 안경은 '슈퍼맨' 클락 켄트를 연상시킨다. 익숙한 히어로 문법을 비틀면서도 장르 팬들이 즐길 요소들을 영리하게 녹여냈다.

'원더풀스'는 거창한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히어로는 위대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건넨다.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 세상을 구하는 모지리 히어로들이 더욱 사랑스럽다.

연예부 기자 sjay0928@sportsseoul.com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와!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도쿄 신칸센부터 설악산 비경까지!

고국/일본 관광 10박 11일

도쿄 > 하코네(온천) > 오사카/고베 > 교토/나라 > 부산 > 울산/경주 > 안동 > 평창/강릉 > 설악산 > 서울

인솔자 동반

- ★ 빠르고 편안한 이동
- ★ 일정 후 고국 방문 연장 가능
- ★ 고국의 향수를 채우는 '팔도 미식 & 전국 일주'
- ★ 전 일정 전문 가이드 및 엄선된 4~5성급 호텔
- ★ 일본의 정취를 느끼는 '특급 온천' 숙박
- ★ 도쿄-오사카 구간 '신칸센' 탑승

\$2,999 + 항공

단, 1회!
10/17 ~10/27

올가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은 샤를부아에서 만납니다.

캐나다 샤를부아 단풍여행 5일

천섬&오타와 / 생앤캐년&샤를부아 단풍열차 / 올드 퀘벡 관광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몽모렌시 폭포&몬트리올

프리미엄
10/14 ~10/18

- ★ 몽트랑블랑 최고급 리조트 숙박
- ★ 캐나다 동부 핵심 관광지 완전 포함
- ★ 자연, 도시, 문화가 모두 담긴 프리미엄 일정
- ★ 샤를부아 단풍열차 탑승
- ★ 가장 아름다운 단풍 절정 시즌 진행

\$1,699 + 항공

대만과 일본을 잇는 명품 크루즈

대만/일본 크루즈 8박 9일

타이페이 > 이시가키 > 미야코지마 > 오키나와 > 이시가키 > 타이페이

인솔자 동반

- ★ 일정 종료 후 한국에서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올 수 있는 일정!
- ★ 크루즈캐빈, 공항트랜스퍼, 기항지투어 포함 노옵션!
- ★ 기항지 투어 전 일정 포함 '노옵션' 프리미엄 여행
- ★ 천연 온천부터 발마사지까지, 완벽한 힐링 코스
- ★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벨리시마' 탑승
- ★ 크루즈 전후 대만 특급 호텔 숙박

\$1,999 + 항공

드림 스페셜
11/22 ~11/30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 몰타 4개국 완벽일주

서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바르셀로나 > 마르세유 > 제노바 > 나폴리/폼페이 > 메시나 > 발레타 > 바르셀로나(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몰타)

인솔자 동반

선착순 디럭스 발코니 ★ 무료 업그레이드 ★

- ★ 정열의 태양과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스페인
- ★ 지중해의 낭만과 남프랑스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이 흐르는 남프랑스
- ★ 찬란한 고대 로마의 역사와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만나는 이탈리아
- ★ 중세 기사단의 성곽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감싸는 지중해의 보석 몰타
- ★ 최신식 초대형 럭셔리 선사 'MSC 월드 유로파' 탑승
- ★ 선상 위 화려한 쇼와 액티비티 무제한

\$2,799 + 항공료 포함

THE BEST 드림 시그니처
9/30 ~10/9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우영우처럼 가볍게 즐겨주세요

이번엔 범정이 아니라 세기말 초능력 세계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큰 사랑을 받았던 유인식 감독과 배우 박은빈이 ‘원더풀스’로 또 한 번 특별한 시너지를 예고했다.

박은빈은 12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원더풀스’ 제작발표회에서 “‘우영우’ 이후 이렇게 빨리 다시 의기투합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원더풀스’는 1999년 세기말,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동네 모지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다. 오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박은빈의 감회는 남달랐다. “‘우영우’ 김밥집 앞에서 처음 작품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았다”는 것. 특히 박은빈은 유 감독과의 재회에 기뻐하며 “‘우영우’ 이후 또 한번 시청자들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감독은 작품 기획 계기에 대해 “원래부터 슈퍼히어로 장르를 좋아했다. 어릴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작품들을 향한 로망이 늘 있었다. 작가님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제 가슴도 다시 두근거렸다”고 설명했다.

유 감독은 ‘우영우’ 이후 다시 만난 박은빈과 임성재에 대한 소감도 꺼냈다. “박은빈은 ‘우영우’를 함께하면서 늘 감탄했다. 불가능이 없는 배우”라고 치켜세운 유 감독은 “코믹 센스도 뛰어나고,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는 배우”라고 전했다.

임성재에 대해서도 “다른 작품에서 보고 놀랐던 배우”라며 “당시 야채를 다듬다가 빙긋 웃는 장면이 전부였는데도, 존재감을 조절할 줄 아는 배우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칭찬했다. 이에 임성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화답했다.

다만, 또 다른 배우 최대훈 역시 ‘우영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유 감독이 깜빡하자 최대훈이 너스레를 떠는 순간도 있었다. 최대훈은 “아무래도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에 다시 만났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라고 능청스럽게 농담했고, 이에 유인식 감독이 “아차차”라고 반응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우영우’가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들이 재결합한 ‘원더풀스’의 흥행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유 감독은 “가능하다면 글로벌 1위를 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원더풀스’ 멤버들과 함께 특별한 콘텐츠를 찍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지현 기자



최윤지, 배나라, 정이서, 손현주, 김해숙, 유인식 감독, 박은빈, 임성재, 최대훈 (왼쪽부터)이 1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최승섭 기자

‘원더풀스’로 다시 뭉친 우영우 멤버 유인식 감독-박은빈-임성재-최대훈 동네 모지리로 의기투합 웃음 선사 “글로벌 1위 하면 특별 콘텐츠 공개”

하윤경의 ‘봄날’은 계속된다 ‘햇살’처럼 따뜻한 공감으로



서지현의 몰입

배우에게는 종종 특정 캐릭터가 평생의 수식어처럼 따라붙는다. 그리고 어떤 배우는 그 수식어를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연기 자체로 증명해낸다.

배우 하윤경에겐 ‘봄날의 햇살’이라는 말이 꼭 그렇다.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하윤경은 그렇게 자신의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2015년 국립극단 청소년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로 데뷔한 하윤경은 같은 해 영화 ‘소셜포비아’를 통해 스크린까지 뽐냈다. 2018년 드라마 ‘최고의 이혼’으로 안방극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였다. 짧은 등장만으로도 현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눈도장을 찍은 하윤경은 2022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극중 하윤경이 연기한 최수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동기 우영우(박은빈분)를 질투하면서도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기는 인물이다. 경쟁심과 다정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캐릭터에 현실적인 숨결을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작품 속 우영우가 최수연에게 건넨 “넌 봄날의 햇살 같아”라는 대사는 드라마를 넘어 하윤경이라는 배우를 대표하는 문장이 됐다.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설명처럼 하윤경의 연기에는 특유의 온기가 배어 있다.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인물의 감정을 끝까지 들여다

보게 만드는 힘이다.

그 매력은 이후 작품들에서도 이어졌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 의생활’을 거치며 하윤경은 장르와 캐릭터를 조금씩 넓혀갔다. 그리고 올해 방송된 ‘언더커버 미쓰홍’에서는 또 한 번 섬세한 연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윤경이 맡았던 고복희는 처음엔 빌런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안에 숨겨진 상처와 사연이 드러나고, 결국 홍금보(박신혜 분)의 편에서 서서 용기를 내는 과정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하윤경의 연기에는 늘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붙는다. 어떤 순간에는 미울 수 있어도 결국은 시청자가 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든다. 감정을 과

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결을 섬세하게 쌓아 올린다. 그래서 하윤경의 캐릭터들은 유난히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 마치 실제로 어딘가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덕분에 하윤경은 ‘언더커버 미쓰홍’으로 제62회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여자 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또 한 번 존재감을 입증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시간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하윤경의 시간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JTBC 새 드라마 ‘신의 구슬’과 영화 ‘아파트’까지 올해 하반기 역시 다양한 작품으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장르도, 캐릭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건 결국 하윤경만이 가진 ‘공감’의 힘이다.

동네방네 줄광고

구인

- 한의사 또는 자연의학의 (Acupuncturist or ND)모십니다 wholemedic@gmail.com ☎ 425.640.7585
- Ace 보험 에이전트 모집(페드렐웨이) OT, Bonus, Dividend 있음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전문직을 원하시는 분 - 지식과 경험의 성장을 원하는 분 - 남을 도와주기를 즐거워하는 분 - 안정적 성장을 원하는 분 전화 (253)442-6222
- 아마존 딜리버리 구인 켄트 지역, 영어 필수, 차량 제공 6:00 AM 시작 \$21.25/H (시작 페이) ☎(253) 569.0230, (425) 449.6625
- 세탁소 구인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SUN세탁소에서 PRESS하실분 구합니다. 유경험자 ☎ 253.332.5388
-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 253.582.2975
- 조선용 보험 영어, 한국어 가능자 컴퓨터 엑셀 사용 가능자 함께 성장 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 425.951.9210 / 린우드 지역
- SYS 건축회사에서 오피스 매니저 구합니다. North 지역 사시는분 컴퓨터와 이중언어 가능하시는분 ☎ 206.353.7955
- 당구장 구인!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태양당구장에서 일 하실분을 구합니다. ☎ 719.799.0840
-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 바람 ☎ 253.582.2975
- 싸이딩 기술자 헬퍼 구합니다 성실하게 오래 함께 일하실분 구함 웨더렐웨이, 전화 문의 환영합니다 ☎ 253.397.5678
- 웨더렐웨이 카카투스치킨 주말 토요일 일요일 PM 4:30~11시 ☎ 206.302.9626

렌트 / 리스

- 마켓 스시 매매 (2만 5천) 주변 10만 세대 입주중. 지난 3년 동안 년 5-6만 순수입, 적은투자, 쉬운운영, 1인 운영가능. 타코마에서 20분거리. 오후 2시에는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6.914.0561
- 퓨얼업 중심가, 메르디안길 대형 노인 요양소 앞에 위치한 다용도 빌딩, 각종 의료원 (치과, 한의원, 마사지, 변호사, 부동산, 사무실 등)과 단체 행사 모임, 교회 예배 장소 등에 최적 ☎ 206.383.7716

매매

- 야외용 그릴,야채 말리는것, 미라클터치, 오디오
- 아주좋은거, 기타 주방용품 거의 새것 싼값에 팝니다. 253-861-8310
- 드랍샵 매매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 60층 빌딩이 2개 있는 건물안에 드랍샵이 위치 순수익: 월 5천불 206-317-9973
- 자동차 매매 2008년형 Benz 350 202 k mile Gold Color 상태양호 \$6,000 Federel Way, 33120 Pacific Hwy #2 ☎ (719)799-0840

기타

- 영어회화 지도 (사우스 지역만) 한국말 할 수 있는 미국인 영어교사 Auburn, Federal Way, Kent, Taoma, Renton, Bellevue 안전을 위해방문시마스크 착용합니다. ☎ (253) 561-5824 John Stecker
- 취미생활 하고 싶으신 분 찾습니다. 드럼, 베이스기타, 색소폰 각각 1분씩 장소: 페더럴웨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cg2291@gmail.com
- [조이플 선교 합창단 단원모집] 단장: 문창선 지휘: 박상영 반주: 김지영
1.모집 대상:성인 개신교 신자, 남녀
2.파트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3.연습일:
*오전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오후반: 한달에 한번 주일 오후 3시30분~ 5시30분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참석가능)
4.연습장소: 타코마 삼일교회(권상길목사시무)
5.주소:7461 S Verde St, Tacoma,WA 98409 (타코마 마운트 타호마 고등학교옆)
*가입 문의:253-495-4595 단장: 문창선 장로

- 벨뷰 볼룸댄스 동호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Briora Dance studio 2260 회비: \$40/4주 ☎ (206) 227-5001 민수지
- 인생이 달라지는 독서 모임 좋은 책, 깊은 대화, 따뜻한 사람들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책사공에서 시작해 보세요 장소: University Place Library 시간: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문의: 571-351-7663
- 국악한마당 수강생 모집 서북미 지역에서 한국의 전통음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국악한마당에서 민요와 장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수강일: 매주 화요일 오후 6:30,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1139 Browns Point Blvd NE Tacoma, WA 98422 ☎ (253) 205-9569
- 페더럴웨이 유스 심포니 단원 모집 오디션 후 발탁, 한국 순회 공연, 연중 3회 공연. 대상: 12살~고등학생까지 ☎ (425) 647-3847
- 탈춤 강습 (강사: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국가 무형문화재 제 49호 송파산대놀이 시애틀 지부 전통 탈놀이 및 장구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9:30 장소: Prestige Dance Studio 33639 9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206) 313-7696
- 무료 영어 회화 강습 미국인과 한국인 선교사에게 배우는 무료 영어 회화! 일상 영어회화부터 시민권 시험 준비까지 맞춤형 1대1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과 수업 약속을 잡기 위해 아래 번호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오늘 연락주세요! 줌(ZOOM) 등의 비디오 수업과 만나서 하는 과외 수업을 제공합니다. (방문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전 시애틀 지역 한인 대상 페이스북: @EnglishConnectSeattle
- 한인스노미시노인회 빙고, 라인댄스, 요가, 장기, 바둑, 합창, 한국무용, 탁구, 건강세미나. 점심제공. 월, 금요일 모임. 23000 Lakeview Drive mountlake Terrace WA 98034 ☎ (425) 260-8460
- 시애틀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 모집 초교파적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로 워싱턴주 정부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학위 프로그램: 평신도 성서대학, 신학사,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현재 학기중이며 수시 입학문의 상담합니다. ☎ (206) 915-9064 Kenmore ☎ (206) 778-6596 Federal Way

줄광고 \$40/4회 206.779.5382

BOX 광고란

줄광고 \$40/mo. | 박스광고 \$80/mo.

문의 : 206-779-5382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티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
(카톡주문 가능)

하우스방 렌트

켄트 골프코스 뒷문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 하우스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253-374-0458

(구인)족발전문식당

에드먼즈 부한 mall
족발전문식당
순대 경험 있으신분 구합니다.

206-370-0526

Auburn 하우스 렌트

Gated 커뮤니티 2bed, 1den, 2.5bath,
주차장(차2개 주차) 마스타 bed 1층 위치,
월렌트 \$2,750, 수도, 하수도, 잔디관리비 포함(월\$250)
Total: \$3,000

연락처 206-356-2388 (메세지)

구인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주말 근무 가능한
캐쉬어(Cashier)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253.582.2975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ur.com

253-839-9440
(박쉬나 법률)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돈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주엘 헤어살롱

머리숱이나 머리 길이 연장,
스트레이트 파마, 꼬머리(Braiding)
가발(100% human hair) 제작 및 판매
영구 문신(눈썹, 아이라인)
인셀덤 스킨케어 판매

253-355-2597

과외

SAT 1,2 / PSAT / ACT / IVY League UC/ UW 진학전문 지도
(9-12학년) <University Place, Tacoma, Puyallup>

253.878.1211

아파트 렌트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 렌트비\$1,500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 렌트비\$1,500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매매

YELM 시티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합니다.
월 매상 : \$ 15,000
렌트비 : \$2,200
매매가 : \$12만

360.528.9589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 직위: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 ▶페이조건: \$22~\$52.08 +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선용보험에서 함께 성장하실 에이전트
및 office assistant를 찾습니다.

영어, 한국어 사용
컴퓨터 사용 (Excel, Word)
메디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중점
취업가능자 (full time/ part time)
베네핏 가능, 영문 이력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951.9210
justinc@evergroup.us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Sea Tac 근처)지역

206-334-7532(전화,문자)

스튜디오 렌트

타코마 새생명교회
4거리 위치 렌트비
950불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포함)
즉시 입주 가능
혼자 사시는 분 환영

253-820-6401

단독 별채(Separate Unit) 임대

페더럴웨이 TJ High School 근처에
있는 단독 별채를 렌트합니다.
3Bedroom과 욕실 1.5개(1 full+half),
넓은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1,300sqft 넓은 집이며,
렌트비는 월 \$1,850(유틸리티/공과금 별도)
6월 4일 이후 입주 가능

253-332-5332

버클리 칼럼 | 교통안전 연재 시리즈



글: 제임스 리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206-909-8289)

“교통사고 피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실수는 향후 치료비 보상, 손해배상, 법적 분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는 실수
사고 충격으로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정보를 확보한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 ▲통증이 없다고 병원 진료를 미루는 것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성

통증이나 후유증은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 기록을 남겨야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사와 직접 협상하는 실수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려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기록되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경위에 대해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것
사고 당시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진술만을 하며,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실수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현장의 사진, 차량 손상 부위, 상대 차량 번호, 목격자 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 처리뿐 아니라 법적 분쟁 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상담을 미루는 실수
피해자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법률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과 관계 없이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한 초기 상담은 필수입니다. 특히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맷음말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대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

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실수들을 피하고,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은 피해자의 회복과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美 정부, UFO 기밀문서 170건 공개... "현대 UFO 시대 시작점은 워싱턴주"

- ▶ 美 트럼프 행정부, 전쟁부(Department of War) 웹사이트 통해 UFO · UAP 관련 기밀문서 170여 건 공개
- ▶ 민간인 · 민항기 조종사 · 우주비행사 · 해군 조종사 목격 보고 등 망라... 워싱턴주서 시작된 1947년 사건 재조명
- ▶ 워싱턴주 변호사 · 영화 제작자 스티브 에드미스턴 "회의론자일수록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UFO(미확인비행물체) 관련 기밀문서 170여 건을 공개한 가운데, 워싱턴주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이 현대 UFO 역사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전쟁부(Department of War) 웹사이트를 통해 UFO 또는 UAP(미확인 이상현상 ·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자료 170여 건을 공개했다. 공개 문서에는 민간인 목격 사례뿐 아니라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 우주비행사, 해군 조종사들의 보고 내용까지

폭넓게 담겼다. ◆ "현대 UFO 시대의 출발점은 워싱턴주" 워싱턴주의 변호사이자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에드미스턴(Steve Edmiston)은 KIRO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공개 자료는 현대 UFO 시대와 '맨 인 블랙(Men in Black)' 같은 문화적 서사가 워싱턴주에서 시작됐다는 기존 인식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는 UFO 역사의 최전선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며 "현대 UFO 시대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을 이번 자료가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미스턴은 1947년

퓨젯사운드 상공에서 벌어진 '모리 아일랜드 사건(Maury Island Incident)'을 다룬 단편영화 '더 모리 아일랜드 인시던트(The Maury Island Incident)'의 각본 ·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 1947년 퓨젯사운드 '도넛 형태 비행체' 사건 문제의 1947년 사건은 워싱턴주 주민 해럴드 달(Harold Dahl)이 하늘에 떠 있던 도넛 형태의 비행물체 여러 대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비행체 중 하나에서 떨어진 금속 파편 때문에 아들이 다치고 반려견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초기 UFO 기록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이후 연방수사국(FBI)과 군 당국의 조사까지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현대 UFO 담론의 대표적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같은 해 인근 캐스케이드 산맥 상공에서 민간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Kenneth Arnold)가 '비행접시'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일까지 더해지면서, 워싱턴주는 일찌감치 'UFO 역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 "외계인 입증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열린 사고 필요" 다만 에드미스턴은 이번 문서 공개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백악관 잔디밭에 외계 우주선이 착륙하는 수준의 공개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다"며 "흥미로운 역사 자료들은 있지만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론자일수록 오히려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며 "인류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발견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군 조종사 등의 미확인 비행현상 보고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며 관련 정보의 기밀 해제를 확대해 왔다. 다만 현재까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입증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워싱턴주 일대에서는 1947년 모리 아일랜드 사건과 케네스 아놀드의 '비행접시' 목격담을 비롯해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얽힌 UFO 관련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기자칼럼



박미영

박미영 기자가 본 세상 이야기
judy0927@hotmail.com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름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야 한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무게 있는 연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책임도 든다. 그냥 쉬는 날의 자유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느낀다. 새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현실이 고맙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번 연휴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것도 새삼스레 더 행복한 일이라 여겨진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바카티오(Vacatio)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바캉스는 무조건 노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스

러운 것이라고 풀이한다. 쌓여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떨어지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 반드시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지금의 공간에서 마음을 비워내는 것도 진정한 휴가를 보내는 일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공간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어디를 떠나야만 한다는 집착에 몰두한 나머지 여행을 다녀와서도 또 다른 것 누름으로 진짜 소중한 '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는 일은 큰 행운이다. 그러나 자유가 손안에 쥐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내 안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다름없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진정한 자유를 송고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차례 비워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미용칼럼



원장 유명숙

젊음은 선물,
늙음은 예술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 못 먹게 하셨고 또 비늘 없는 물고기, 즉 뱀장어, 오징어 등등 먹지 마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 구약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사 다 자유케 하셨죠(갈라디아서 참조하세요). 그러므로 문신하지 말라 하는 것 다 없어서 자유케 하셨는데 일부 목회자들, 교인들 아직도 문신을 죄악시 여기니 참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돼지 숯불갈비, 오징어 두루치기 맛있게 해드시네요. ㅎㅎㅎ. 그러나 단지 젊어서 피부가 곱고 매끄러울 때에는 어찌 보면 장미꽃 문신이라든가 문신하면 예쁘게 보일지는 몰라도 특히 백인들 피부가 40세만 넘어도 수분과 유분이 사라진 피부에 남은 문신은 마치 땅에 떨어져 시들어 가는 장미꽃잎 같아서 비애를 느끼니 노후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분은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영구화장은 노화로 눈썹이 사라지면 장티푸스 앓고 난 환자 같고 따라서 검은 눈동자도 흐려 보이는데 영구화장으로 보안을

해주면 새로 단장한 집 같아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자신감과 즐거움을 더해주소? 입술도 같은데요. 젊어서 장미꽃잎 같이 붉고 촉촉한 입술이 나이로 붉은색도 사라지고 수분도 사라지면 그 곱던 입술이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 같아 아주 흉하게 보이는데요. 영구화장으로 보안을 해주고 나면 청춘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 자신도 즐겁고 타인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요, 매일 세안 후에 립스틱으로 붉게 하는 수고가 아주 덜한답니다. 문신은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고요. 반대로 눈썹, 입술 영구화장은 식사 사드리면서 권면하고 싶네요. ㅎㅎㅎ. 아무쪼록 "젊음은 선물, 늙음은 예술"이라는 서양 속담같이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Ph. 253.306.4268 유명스킨: 유명숙

2027년 서북미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업소록 리스팅·광고접수**
광고문의 206.779.5382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쳐짐.....	360	만원	코트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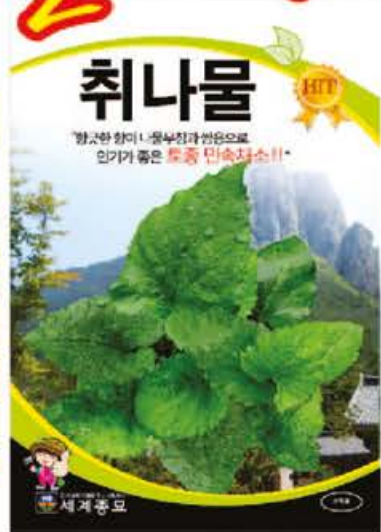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씨앗이 왔어요!! 배물리 보세요!!



안깎아도 싸게 파는
지금 신신백화점을 방문하시면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씨앗 종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신백화점 (253)582-2975 월-토: 10am-7pm 일: Closed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HMART 7 DAYS SALE **MAY 22ND - MAY 28TH,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아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Long Weekend Grill Party 특가전

BBQ 후 달달한 간식까지!

Memorial Day Specials

BBQ, Half, Sliced 3종 **삼겹살 6.48 LB** (ONLY 4 days 금/토/일/월)

Richmond 라벨리 리치몬드 아이스크림 4pk/108ml 2종 **3.98 EA**

삼립 크림빵 135g 5종 **1.98 EA**

스웰리 소금 버터떡빵 38g **1.98 EA**

Choco mont 오리온 초코몽 4pk/36g 3종 **2.48 EA**

HOT DEALS

레드체리 6.48 LB (ONLY 4 days 금/토/일/월)

파김치 800g, 650g 2종 **10.98 PK / 12.98 PK**

WHITE SHRIMP 9-14 **머리새우 11.98 PK** (ONLY 4 days 금/토/일/월)

항공수산전 **Fresh Seafood, Flown Directly from Korea**

신선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 활광어, 활도다리, 아나고횡감, 봉지해삼, 봉지망게 그리고 민물장어(구이용)을 즐겨보세요.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2LBS (ZESPRI) 골드키위 9.98 PK	하미 멜론 1.28 LB	백/황도 복숭아 3.48 LB	네이블오렌지 0.98 LB	블루베리 9.8oz 5.48 PK	타미 망고 12.98 BOX
순두부찌개 키트 (플무원) 매운/보통매운/순한맛 2.48 EA	그린빈 2.28 LB	단호박 1.08 LB	한국오이 1.48 LB	생강 1.28 LB	파 3 FOR 1.00 EA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LA냉동갈비 11.98 LB	차돌박이 8.98 LB	앵거스 초이스 우삼겹 샤브 8.48 LB	찌게용 삼겹살 2.98 LB	냉장 돼지불고기 4.48 LB	돼지등갈비 5.48 LB
------------------------	---------------------	-------------------------------	------------------------	-------------------------	----------------------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L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15LBS (초림동이) 경기미 BAG 9.98	 18pk/210g (CJ) 햇반 Hmart 40주년 15.98 BOX	 6pk/110g (팔도) 랩스타킹컵 4종 9.98 BOX	 500g (사조) 순창12가지 양념쌈장 2.48 EA	 330g (한상) 삼부 2종 1.98 EA	 840g (청정원) 4종 고기양념 3.98 EA
 300g (어선) 우육면 3종 5.98 EA	 620g (어선) 알래스카 명태코다리찜 11.98 EA	 350g (대림선) 어묵전골 2.98 EA	 560g (초림동이) 떡볶이 3종 3.98 EA	 350g (홍진경) 더만두 4종 3.48 EA	 1.54LB (오뚜기) 손만두 2종 6.98 EA
 4pk/120g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매운맛 3.98 EA	 5pk/4.59oz 5pk/4.94oz (삼양) 불닭볶음면 2종 5.98 EA	 594g, 1.07kg (한상) 해변막국수 2종 3.98 EA	 2.5kg (오뚜기) 옛날국수소면 8.98 EA	 12pk/5g (초림동이) 생돌김 구이 4.98 EA	 12.34oz (초림동이) 자반고등어 5.98 EA
 4can/150g (동원) 라이드 스탠드 참치 7.98 EA	 480g (초림동이) 레몬주부 초밥여왕 3.98 EA	 360g (비비고) 포테이토 통모자 핫도그 6.98 EA	 1.5kg (초림동이) 토막 핫찰옥수수 6.98 EA	 1.5LB (서울순대) 당수니 9.98 EA	 400g (에코팜) 한국산 나물 3종 2.98 EA
 400g (대림선) 붕어빵 3종 4.98 EA	 12pk/39g (오리온) 초코파이 3.48 EA	 135g (오리온) 썬칩 2종 2.48 EA	 6pk/350ml (SFC) 5종 과일소다 3.98 EA	 500ml (칼피코) 칼피코 드링크 6종 1.78 EA	 30tbs/2.7g (동서) 카누 마일드/다크 7.98 BOX

SEAFOOD SALE 수산

 200g (POLARBIRD) 세발낙지 3.68 PK	 2LB (ORCA BAY) 스노우크랩 32.98 PK	 광어뱃살 6.98 LB	 10PK (최우량) 가장게장 양념게장 10.98 PK
---	--	---	---

DELI SPECIALS 반찬

 250g (레온랜드) 매운어묵볶음 3.98 PK	 150g (레온랜드) 콩장조림 2.98 PK	 110g (레온랜드) 고추장쥐포채 4.98 PK	 220g (레온랜드) 백년초두툼떡 3.98 PK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7 Containers 2 Dividers (맹스소운) 냉동 용기세트 30.78 EA	 1kg (엄마와선택) 구연산 지퍼백 7.48 EA	 1.5kg (바른세제) 과탄산소다 세제 5.28 EA	 1.5kg (바른세제) 베이킹소다 세제 4.98 EA
---	--	--	---

NEW ARRIVAL
SHOP NOW!



20btl/500ml (프레쉬) 마운틴프레쉬 생수
3.98 BOX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 - 9pm)

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